



# 도의회 광장

2021  
**04**  
제72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u.kr ISSN 2671-9754

02

제394회 임시회



03/0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특집



08

생생 의정활동



10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반인권·반환경적 작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한중)는 4월 14일 제주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해양환경과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반환경적 행태로 규정,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0일 오후 열린 제 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이틀째인 21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총 21명이 도정질문에 나섰으며, 26일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졌다.



## 개회사

## “코로나19 지역경제 도산위기...민생추경 앞당겨야”

## 제394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4월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94회 임시회 개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민생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었고 생계지원 복지사업 신청도 올해 들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다. 관광, 건설, 1차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성한 곳이 없다.”고 위기상황을 전했다.

이어 “전세버스업만 보더라도 발이 묶인지 1년이 넘다보니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모자라 도산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추경을 조속히 앞당기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제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회생과 사회안정 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지출 여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방세수는 물론 교부세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균특회계의 제주계정도 축소돼 2007년 5.12%에서 올해 2.0%에 그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 의장은 “응당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은 늘어난 사무와 인력 증가분 예산마저 지방비로 투입되다보니 도의회 추정 도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조원 가까이 달할 정도”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도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뿐”이라며, “국비 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비롯해 제주도가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의 설득과 절충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울본부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절충 협력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실·국 모두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 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0일 오후 2시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사진)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은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1차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 속 오염수 속에는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 이외에도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고농도의 세슘, 코발트-60,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 온 행태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2021년 4월 14일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회장 김한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상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용집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권중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병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강원도의회 의장 광도영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문희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하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26일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본지에 게재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내용은 주요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과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 및 답변 요약 (2021년 4월 21일 ~ 23일)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은



####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국제자유도시'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영리병원 취소 이후 헬스케어타운 활용 방안, 제주 디지털 뉴딜사업 중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성은, 드림타워 카지노 개설 문제와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써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강화 방안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황과 현안 과제는, 돌봄으로써 '먹거리 전략'과 추진 체계는,

#### ▶원희룡 도지사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음 2, 3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 수준의 자치권 인정이 필요하며 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사업기반이 나올 수 있다.

###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 지사의 대권 도전 의사는



####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컴팩트 시티 추진 의견은,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은, 청년참여예산제도 시범 운영 내용과 성과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의 필요성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청문회 시행에 대한 견해는,

#### ▶원희룡 도지사

두 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은



####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및 전기난방기 도입 필요성과 방안은, 농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 방안 및 해운물류 공사 도입 필요성은, 코로나19 위기 방역 및 의료 대책에 대한 평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은,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고위험 산모·신형사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 계획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 ▶원희룡 도지사

서귀포시의 경우 2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예방접종센터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시작부터 이상반응 관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JDC미래전략 용역 따른 수소전기트램 입장은



####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 1·2동)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도의 계획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과의 관계 정립 방향은, 제2 탐라영재관 운영 방향과 계획은,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에 제주청년센터가 포함된 것에 대한 의견은, 청년 일자리,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 방향은,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은,

#### ▶원희룡 도지사

친환경, 특히 미래기술을 이용한 트램은 개념 자체는 아주 좋다고 본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몇 년전 사업자의 구체적 제안을 보면 들여다보면 경제성이나 트램노선 확보를 위한 기존 건물 소유주 관계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 관련 안전 문제 해소 방안은



####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추진 방안은, 서귀포 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 방안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전 문제 해소 방안은, 체육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도내 저류지 활용 방안은, 공공도서관 추진 사항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진행 사항 및 추진 계획은,

#### ▶원희룡 도지사

우선 당시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 도로가 내리막길이었고, 화물차 운전자가 육지 분으로 제주 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전국 시도의 화물차 단체 등에 제주 5.16과 1100도로에서의 운행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했다.

## 도내 공영주차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지는



###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구의 학교 건립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도내 공영주차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원도심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견해는,

### ▶원희룡 도지사

주차 문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저층 주차건물들은 추후 층수를 올릴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선 건물들이다. 제주 도시 여건에서 얼마든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 대권 도전 계획과 도지사 3선 출마는



###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대권 도전 계획과 도지사 3선 출마는,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와 행정시 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는, 대중교통 체제개편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논란을 벌인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는, 4·3 관련 도내 주도 세력에 대한 추가진상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사유와 공개 및 발행 계획은, 도지사의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불가 사유와 주장은 ADPI 보고서와 일치하는 사실인지,

### ▶원희룡 도지사

제주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고 올해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미룬다면 저는 제주 제2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 웰니스 관광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역 선정과 관련 대응이 미진한 이유는, 웰니스 관광이 제주지역 특성화 관광 콘텐츠로 가기 위한 지사의 의지는, 일도2동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신산공원 활성화 극대화 방안은, 세계유산마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 반영 의향은, 세계유산마을 별 탐방 안내소 건립 방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 의향은,

### ▶원희룡 도지사

제주 관광 전반이 웰니스 관광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맞고, 또 다른 의미에서 맞지 않다. 제주 관광의 주된 부분을 웰니스로 차별화해 발전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웰니스가 제주의 주된 산업이고, 주력 방향이다.

## 만감류 품질문제 개선 및 재해 보험의 확대 방안은



###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응 방안은, 노후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 방안은, FTA 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은, 육지부 감귤 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은, 만감류 품질문제 개선 방안은,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은, 공익형직불제 전환에 따른 마늘기금사업 문제에 대한 견해는,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은,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은,

### ▶원희룡 도지사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 오히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카라향 같은 일부 품목이 포함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한정할 경우가 있는데 향후 보험사와 협의해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의향은



###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는, 공공산후조리원 읍면지역 및 제주시 확대 설치 의향은,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지원 정책 및 산모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견해는, 산림교육 추진 계획과 향후 발전 방안은, 일제 동굴진지 현황 및 실태조사, 관리 방안은, 일제동굴진지 활용과 읍면동별 사무분장 운영 방안은,

### ▶원희룡 도지사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주에는 하나밖에 없다보니 이에 대한 산후조리원 민간에서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을 중심으로 수요나 반응이 좋다.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제주시 동지역에도 확산해야 할 것이냐는 의견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정의 노력은



###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읍)

대권 도전 결정에 대한 공식화 계획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견해와 도민 공론화 추진 필요성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에 대한 견해와 도정의 의지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한 견해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 해소 방안은,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예상 부작용 대응 대책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정의 노력은,

### ▶원희룡 도지사

의견을 말하는 게 왜 갈등인가. 침묵해야 하는 것이냐. 제2공항은 2014년 도지사 공약이었다. 7년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국책사업이다. 일방적으로 의사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

## 쇼핑아웃렛 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계획은



###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재정특례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불수용' 과제 현황과 개선 대책은,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 상황은,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마련 필요성과 도정의 준비 상황은,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개설 추진 현황은, 대규모 점포 관련 정책 대응 미숙성에 관한 견해는, 특별개발우대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원희룡 도지사

전문점과 복합쇼핑몰 문제는 아웃렛만 볼 것이냐 전체적인 입지를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생발전협의회 관련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추후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다.

## 대중교통 준공영제 따른 관리감독 범위에 대한 입장은



###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확보 여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주도 미적용에 따른 대처 방안은.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한 근로계약 개선 대책은.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업체 관리 감독 범위에 대한 입장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CFI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 피해 및 근로자 등 상생 방안 대책은. 장애인 해양레저 관광사업 활성화 계획은.

##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한 소신은



###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주변 정비가 어려운 이유는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인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뤄진 대정향교 문화재 건물 복원에 대한 견해는.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한 입장과 어업 피해 보상 방안은. 최근 5년간 도내 화물 물동량 현황은 어떠한지 특히 화순항 화물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안덕 꽃자왈 생태 탐방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성과 및 평가는



###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제주도의 기후변화 및 위기의 진단 관련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성과 및 냉정한 평가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개선방향은. 강정정수장 유충사건 등 제주도 상하수도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주차장확보와 운영 관리 문제 및 자동차 운전자 책임강화 방안은. 원칙만 있는 인사체계에 재정비 방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일몰 이후 제주도 1차산업 예산 확보 방안은.

##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설명 필요한 부분은



###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주의 인재 양성 및 지원 정책 관련 제주도의 출산장려정책과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계획은. 유기동물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내 민간재활용업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 방안은. 환경기초시설 광역화중심에서 분산화 처리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은.

##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불법 운영 조치계획은



###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권기금사업 관련 복권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 이후 대책은.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재정분권은 타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하여 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불법 운영 조치계획은. 소규모 공원 조성 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 '건강안보'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는.

## 제2공항 건설 추진 의사는



### ▲강시백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은.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비판 해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도민 스포츠활동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 기반 시설 '제2공항 건설'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추진 상황과 애로점은.

##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이해충돌 해법은



###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처리난에 대한 대책은. 마을기금 조성 및 마을기금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한·일EIZ 어업협상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은.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부안은.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시 해법에 대한 견해는.

### ▶원희룡 도지사

당초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운전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기준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복리후생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 ▶원희룡 도지사

해루질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에 야간 해루질의 경우 전국 최초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어촌계나 해녀를 위한 종패사업은 해루질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강력히 단속하겠다.

### ▶원희룡 도지사

가파도 프로젝트는 현재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가파도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 ▶원희룡 도지사

세계와 미래 인력의 연결 통로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임기 이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힘쓰겠다. 도지사 임기말까지 제2공항이 결론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원희룡 도지사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 맞다. 제주시가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형사 고발로 1단계 조치는 된 것이다.

### ▶원희룡 도지사

남은 임기 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이며,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항공기 간 접촉사고로 위험하다.

### ▶원희룡 도지사

환경영향 저감방안 보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보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갈등이 있다고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추진할 것.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향후 지급 계획은



###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 패소 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 그리고 향후 지급계획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공유지 지적공부 정리 실적과 맹지 해소필지 현황 및 향후 정리계획은. 도내 최대 성읍저수지 이용 관련 이용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은. 농협 협력사업 농기계 구입지원 4개년 계획 관련 인력·시설·장비 임대실적과 어려움 해소 대책은. 국가지정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과 향후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대책은.

### ▶원희룡 도지사

사실 사유지를 도로로 우리 도민들이 쓰는 것이다. 당연히 남의 재산 사용했으면 사들이든지 사용료 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고 사안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일괄정리를 하려면 특단의 자원 마련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시민복지타운 항구적 활용 방안은



###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고산리 유적, 수월봉 지질, 성 김대건 신부길 등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은. 저지문화지구 운영 종합사업소 설치 운영과 마을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지리 마을 공동체에 위탁 방안에 대한 견해는. 축산 약취 저감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건의, 돈사 현대화 추진 등 지역 양돈농장과 주민 상생 방안, 양돈 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생산된 '재이용수' 활용 제도 개선 방안은. 용포천 재정비 사업과 중장기 계획 마련방안은.

### ▶원희룡 도지사

좋은 아이디어지만 워낙 여러 용도에 대한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시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부지인 만큼 종합적인 이행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 아직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즉답하기는 선부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및 답변 요약

(2021년 4월 26일)

## IB 교육 관련 추진 사항은



### ▲부공남 교육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계획은. 제주특별법 상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점은. IB 교육 관련 추진 사항은. 교육분야 제주형 뉴딜 예산 확보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제주교육의 대응과 방향은.

### ▶이석문 도교육감

제주의 경우 현재 표선중학교와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가 'IB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IB를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감사드린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 제주외고의 일반계고 전환 추진 상황은



###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방향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제주외고의 일반계고 전환 추진 상황은.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입장은.

### ▶이석문 도교육감

정부 지침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특목고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나, 현 위치에 있냐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 원격수업 플랫폼 확충에 대한 구상은



###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

원격수업 플랫폼 확충에 대한 계획은. 학교 방역 관련 대응 방안은. 일선학교 방역의 현장 속에 있는 보건교사 업무 과중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비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문제 방안은. 방과후학교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 ▶이석문 도교육감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

## 오등봉공원 학교 초과밀화 대책은



###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학교역사관 운영 체계 미흡에 대한 대책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부족에 대한 견해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은. 오등봉 공원 주택단지 조성 시 인접학교 초과밀화 대책은.

### ▶이석문 도교육감

코로나19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상으로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섰다. 현재 오등봉공원 주변을 보면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학교부지는 없이 주택만 들어서고 있다.

## 사교육비 경감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법은



### ▲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흥동)

사교육비 경감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서귀포시 우회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대책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는.

### ▶ 이석문 도교육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세부추진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에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은



### ▲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탄력급식의 방향은. 특수교육에 대한 방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학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특례를 받도록 할 의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이행과제는.

### ▶ 이석문 도교육감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 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당국과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문제 해소 대안은



### ▲ 오대익 교육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문제 해소 방안은. 코로나19 우울증 등으로 학생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 지원 대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이유는.

### ▶ 이석문 도교육감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다.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힘을 다하고, 대한민국 교육 제1의 과제인 '평가 혁신'의 희망도 충실히 키우겠다.

##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 ▲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비만이나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은.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강정택지개발에 따른 새서귀초 상황에 대한 개선 의향은.

### ▶ 이석문 도교육감

다자녀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00여만원, 초·중학생은 최대 20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의 그늘이 커져 교육복지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시기다. 복지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도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대안 마련은. 자유학년제 시행에 대한 대안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살리기 계획에 대한 지원 현황과 실적은.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추진 사항은.

### ▶ 이석문 도교육감

고교학점제의 안착은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 간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며, 학교관리자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도교육청 민원서비스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 ▲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동동·영천동)

제주도교육청 민원서비스가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특정분야 교육공무직원 문제 해결 방법은.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활성화 방향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상생협력 방안은.

### ▶ 이석문 도교육감

'사회적배려 대상자 사전예약제 민원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동반 민원인 등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 학생 비만 정책 추진 성과는



###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

도교육청 제주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은. 한복진흥센터의 한복교복 건설팅 추진 의향은. 도교육청 학생 전문체육 발전 방향에 대한 개선 방안은. 최근 학생 비만을 추이에 따른 주요 비만 정책 추진 성과는.

### ▶ 이석문 도교육감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한 놀이형 교구 '골고루 씹씹이'를 제작하여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비만 예방 등 평생 건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생생 의정활동

# 단순 사무위주 권한이양에서 기능중심 권력적 분권화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4월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제3세션을 진행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대 중앙 절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중심연구단체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학자들이 참석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는 자리로 진행됐다.

제3세션에서는 제1세션(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과 제2세션(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에서 토론되었던 내용과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개별 조항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권력적 분권화에 무게를 두었으며, 제주특별법의 목적 규정에 대한 향후 개정 방향성도 논의됐다.

특히 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과 함께, 현행 제주특별법 분법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사항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토론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설 관련 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민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이 「제주 노임 할증제도 운용 현황 및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노임할증제도 운용 실태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전기산업연구원 현소영 실장은 전기공사시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도서노임할증제 필요성을 발

표했으며, 노임할증제 적용 방향 및 필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각 주제별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민숙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지역 관급공사 진행되는 계약에 도서노임할증제 적용 부서가 제각각임을 지적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계약기준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여건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도서노임할증제를 적용하려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령장애인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4월 1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주관으로 '고령장애인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구 심각한 고령화 수준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 차지 비중 2013년 12.2%, 2019년 48.3%)으로 발생·예견되는 고령장애인 복지사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고령장애인 지원'을 주제로 노승현 교수(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기초발표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참

여하여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철남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이중위험에 처해 있지만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여서 제도적 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해 장애유형의 특성과 생애전주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매우 필요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향후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용암해수 활용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4월 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용암해수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진기욱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장, 박원배 제주지하수센터장, 최혁준 (주)비케이바이오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제주 청정바이오 소재 자원과 고품질의 용암해수 및 지하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지향성 음료 산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산업의 축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용암해수 활용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역산업 육성 정책 등 산·연·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유대강화의 장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공동체 문화 복원 방안은

코로나19 발생 1년 동안 제주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4월 9일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1년 동안 제주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진단

하고, 제주공동체가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승한 전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다문화·외국인 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방안 구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주관으로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위한 토론회가 4월 13

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성용 박사(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송창권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이 도외로 대폭 유출되거나 과다하게 민간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지역 재투자자를 촉진하고 도민에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이익 중 일부를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의미있는 조례가 활성화되지 못함을 점검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개발이익 도민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용 박사는 "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제도 강화를 제안하면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와 복지정책의 결합 '청년기본소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제주복지연구회(대표 김대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홍동)는 4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제와 복지정책의 결합으로서 '청년기본소득' 중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소득보장이 불안정성과 자산 집중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빈곤의 감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체계 대안이 하나로 제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 청년수당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윤형중 정책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제주도 청년정책'에 대해 강성의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대진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 논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국가를 대신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찬·반 논쟁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및 과제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4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공무직 운영 현황 및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역할의 변화에 따른 교육공무직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첫 시발점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 상황 학교의 역할 확대와 교육 공무직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직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형조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의 현장 토론이 마련됐다.

정민구 부의장은 도내 22개 직종에서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2013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개정작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했다.

##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사업 제도 등 연구 용역 최종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송창권 의원과 문경운 의원, 강연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발굴을 통한 제주해양수산업 육성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4월 16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이후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를 접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주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발굴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에서는 총 20개의 과제를 도출했고,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분야에 ICT기반 제주 스마트양식 시스템으로 전환, 수산물 이커머스 플랫폼 시스템 마련 등 7개 과제, 그린 뉴딜분야는 양식장 배출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체계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어선 개발, 팽생이모자반 처리체계 구축 등 6개 과제, 안전망 강화분야는 해양 교육 및 문화 산업의 활성화, 제주 휴양관광형 해양치유공간 조성, 해녀의 신 소득원 발굴 및 창출, 귀어인 정착지원을 통한 어촌활성화 등 7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해양수산 전문가, 어업인 단체, 바다환경 관련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주 해양수산업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향후 제주도의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④

마직하다  
(형용사) 알맞다

<예문>

“우넝집 말젯오라방은양. 날 바리민 뵤삭이 웃이멍 더 곱두글락후여젯젠 웃주와도주곡양, 뒤티서 놉덜신디 개작거리지도 안후곡 쪼난것에 투다지지도 안후네께. 경 잘도 펜안흔 사름이난양 난 입에 돌양 ‘우넝집 말젯오라방’을 곱아져마썸. 게고 지레광 덕대도 마직후여마썸. 술썸이 곤는 거난 놉덜신딘 줌줍후서예”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오라방 : 손아래 남동생이나 손위의 ‘오라 버니’의 낮춤말
- 뵤삭이, 뵤색이 : 빙그레
- 웃이멍 : 웃으면서
- 곱두글락후여젯젠 : 아주 고와졌다고
- 웃주다 : 높여 대접하다
- 뒤티, 두이 : 뒤에
- 놉덜신디 : 남들에게
- 개작거리다, 게죽거리다 : 깨죽거리다
- 쪼난 것 : 하찮은 것
- 투다지다 : 까다롭다
- 사름이난양 : 사람이니까요
- 입에 돌양 : 입에 매달아 두고서
- 곱아져마썸 : 말하곤 하지요
- 지레 : 키
- 덕대 : 키나 몸피
- 마직후다 : 알맞다
- 술썸이, 술썸 : 살짝
- 곤는 거난 : 말하는 거니까
- 놉덜신딘 : 남들에게는
- 줌줍후서예 : 조용해 주세요



청탁금지법 Q&A



Q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담당 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 137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0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19일 공휴일 35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 9.14.(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기고

코로나 일상 제주의 보건의료정책 변화가 필요



코로나19는 단순한 질병의 위기를 넘어 실업이나 자영업자의 폐업, 돌봄위기 등 지난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른 양상의 사회적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강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안보라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 불평등을 제거할 때 모든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2018년 한국건강행평성학회 발표에 따르면 제주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수명 격차는 7.5년으로(전국 3위), 건강수명 격차는 12.4년(전국 6위)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수명보다 기대수명 불평등이 크다는 것은 사망과 유병에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로 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은 모든 도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 우리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이 다수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보건의료 정보를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개인이 아니라 인구집단에 맞추어진 보건의료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의료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민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감염병 또는 재해·재난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응역량으로 기능한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전략자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의 보건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 1.2%이며, 2020년 보건예산은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이다. 보건의료 예산이 늘어난다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소를 읽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김대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는 '끝'이 없다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동화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시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제주도 2015년 선정된 옛 제주성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처음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장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가득 찼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 종료 이후에는 지원받은 주민 스스로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담만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는 과연 그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과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해당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행정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하고,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평가단 구성방법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공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본 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조례통과에 힘써주길 바라며, 단순히 조례통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

강민숙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저출산 문제와 우리의 과제



유엔미래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고 경고하고 있듯이, 인구구조는 그 나라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 현재 저출산 명목 예산이 46조원이나 되고,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작년까지 200조원 넘게 투입될 정도이다. 그러나 정작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데 저출산 예산의 덕을 봤다는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세계 평균 2.44명임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2040년이 되면 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될 정도로 인구절벽의 현실 앞에서, 결국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갇히고 말았다.

제주 역시 출생자 수도 2018년에 5000명대 선마저 붕괴된 이후 2020년 3987명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인구 데드크로스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년 출생이 3987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초등 1학년생 6748명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 3만1600명이 초등생이 되는 6년 후에는 지금의 초등생 약 4만 3000명보다 1만1400명이나 줄어들게 되어 현재 읍·면지역의 초등생의 수가 9300명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제주도의 읍·면지역 초등학교가 모두가 사라지는 격이 된다.

학교가 읍·면의 중심체이고 마을 발전 동력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읍·면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도민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20대 청년 1178명이 순유출되는 등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은, 결

국 인구 감소를 촉진하고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구 위기의 악순환 고리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일회성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 취업난과 독박육아의 문제, 경력 단절 문제, 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벽들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제주교육의 구조 속에 학령인구 감소가 전제되기에 학급당 학생수의 문제, 학교 규모의 적정화, 읍면과 원도심 학교의 작은학교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속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구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하루 속히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부공남 교육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문화예술을 희생시킨 COVID-19 대응



COVID-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감소는 제주지역 관광 관련 대부분 업종에서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관광의 가장 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인조차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제주도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나 사드 사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에 미친 영향은 -33.5%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음식집 및 숙박 서비스 -23.46%, 도소매 및 상품 서비스 분야의 -13.63%, 운송 서비스의 -23.46%에 비한다면 제주지역 관광업 매출 하락세와 동반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크게 위협받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다.

관광업에서의 경제 침체는 제주 도정의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예산도 감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문화체육 예산 감액편성에 대해 관광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주요 콘텐츠인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다.

올해 역시 감액계획이 시행되었다. 지난해 정부

에서 새로운 경제활성화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을 제시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국비 신청에 집중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주에서도 뉴딜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또 행사성 경비를 대상으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문화예술행사로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수십배가 되고,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 등이 코로나 블루의 특효약이란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문화예술행사 예산들이 10% 이상 감액 조정하는 것은 물론 연초부터 왕벚꽃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어쩌다 진행된 행사 역시 비대면 진행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도민을 위한,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문화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COVID-19 대응을 위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 넓은 해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국한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코로나 블루 치유의 방편으로 과감한 문화예술정책으로써 우선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박호형 의원,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이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체육 정책의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시지부 건립,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제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국 최초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호형 의원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인 지속가능한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다.

박호형 의원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4·3특별법 개정기념, 평화의 숲 기념식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4월 24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4·3의 완전한 해결로 찾아올 제주의 봄'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4·3위령제단에서 묵념하고 배

롱나무를 식재하며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기원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민의 염원인 4·3특별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 제주4·3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정분권 로드맵 새로운 전략 찾는다

문종태 위원장, 세종 재정특례 사례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재정 관련 특례가 불수용 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수준이 제자리를 답습하고 있어, 이를 돌파하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위해 4월 6일 세종시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을 방문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문종태 위원장은 “재정분권 또한 제주가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

존과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발굴과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세종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으로 특별자치시가 되었으나, 최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가 3년 연장되는 등 제주지역과 달리 재정특례가 개선되고 있는 등 오히려 정부 설득 노력 및 추진 전략 등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구 IB 교육 현장 방문, 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4월 12일부터 사흘동안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대구시 소재 전국 최초의 국공립 IB 인증학교(경북사대부설중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 현황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구 IB 인증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현장을

살펴보며 IB 교육의 주요 특징인 '생각을 꺼내는 토론과 과정중심 수업 및 논·서술형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투입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주의 IB 교육 정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적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4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손유원 예정자는 인사청문 인사말을 통해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 하에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

명한 감사 추진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마련, 적극행정 환경 조성·공직사회 투명성을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제주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 좌남수 의장, 주제주 일본 총영사에 강력 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도민 우려 전달

좌남수 의장(사진)은 4월 20일 이세끼 요시야스 일본 총영사를 집무실로 불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좌 의장은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도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좌 의장은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제주의 상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21. 5. 1 - 7. 31

**공모분야** 4개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및 이에 대한 조례안 제시
- 도민 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및 이에 대한 조례안 제시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및 이에 대한 조례안 제시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및 이에 대한 조례안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지자체) > 고시·공고에 공고문 중 주이사람(심사제외대상) 지정 필수

**공모자격** 누구나

**공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선)

- 전자우편 : mskang2754@korea.kr
- 등기우편 : 9363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2021년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문의전화 : ☎ (064) 741-2272 / Fax (064) 741-2289

**작성요령** 공모 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행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개선 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조례안 제·개정 내용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1부

- ※ 신청서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말뭉치) > 고시·공고) 다운로드
- ※ 전자우편 제출 시, 용오자 서명(또는 날인)된 공모 신청서 스캔파일 제출

**심사기준** 6개 항목 100점 만점

- ① 실현 가능성
- ② 효율(효과)성
- ③ 논리성 정도
- ④ 창의성
- ⑤ 적용의 범위
- ⑥ 계속성

**심사날짜** 2021. 8. 31. (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및 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시상규정은 공모차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064-741-2272)